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오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국 경제]

- Bloomberg: 미 3분기에 GDP +2.9%, GDI(국내총소득)는 +0.3%로 그쳐
- Bloomberg: 미 구인 공고 드디어 줄어...1천30만건

#### [미국 금융]

- Bloomberg: 미 모기지율 2개월여 만에 최저치로 하락
- WSJ: 정크 본드 랠리 중이다...투자자들, 인플레이 정점에 베팅

#### [미국 내 물류]

- WSJ: 철도 노조 파업 가능성... 알아둘 점은?

#### [미 무역과 인플레이 감축법(IRA)]

- WSJ: 미 상무장관, "미국이 중국과 "단절"하지 않는다"
- Politico: 한국 등 외국 전기차 회사 IRA 적용 연기(Extension) 가능성
- WSJ: 미 우방국들, "전기차 보조금 시책 수정하라" 요구

#### [글로벌 경제]

- WSJ: 미국에 전기차 충전소가 부족한 이유

#### [한국 경제지 기사들]

- 연합뉴스: 바클레이즈 "Fed, 내년 11월부터 금리인하 나설 것"
- 한경: 中, '아이폰 생산기지' 정저우 전면 봉쇄 풀었지만..."시위대·경찰 충돌"

####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폭스바겐, 혼다 중국 공장 생산 중단...코로나 봉쇄 탓
- Bloomberg: 테크 기업들의 연이은 해고...연방 채용 담당자들이 인재 낚아챈다
- Bloomberg: DoorDash, 인력 6% 축소로 비용 절감

####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 [미국 경제]

#### Bloomberg: Key Gauges of US Economy Paint Mixed Third-Quarter Picture

미 3분기에 GDP +2.9%, GDI(국내총소득)는 +0.3%로 그쳐

- 올해 상반기 미국 경제가 부진한 상황을 보인 후에 3분기 미국 경제의 정부 주요 수치를 보면 경제 모멘텀이 엇갈린 모습을 보였다.
- 인플레이 감축한 GDP는 3분기에 연율로 2.9%. 당초 예비치 2.6%보다는 조금 높게 조정됐다고 연방 상무부는 오늘 수요일 밝혔다.

- 반면에 국가 경제의 실질 구매력을 보여주는 또 다른 주요 공식 지표인 GDI(국내 총소득)는 2분기에 0.8% 하락했는데 3분기에는 0.3% 상승했다.
- 경기 침체 여부를 공식 결정할 때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s Business Cycle Dating Committee는 이 2개 주요 지표의 평균을 사용하는데, 평균은 3분기에 1.6%로 증가했다.
- 한편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3분기 개인 소비지출 가격 지수는 연율 4.6 상승했다.
- 한편 미국 기업들의 수익이 경조한 상황이다. (아래 도표 참조)

### Bloomberg 기사

#### **Bloomberg: US Job Openings Fall to 10.3 Million in Hopeful Sign for Fed 미 구인 공고 드디어 줄어....1천30만건**

- 10월 미 구인 공고가 전달과 거꾸로 줄어들어 수요를 줄이려는 연준에 희망적인 신호를 보냈다.
- 오늘 수요일 연방 노동부에 따르면 일자리 공고가 9월에 1천70만건이었는데 10월에 10만3천건으로 줄었다.
- 이는 구인 수요는 여전히 견고하지만 경제 전망이 어두워지고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구인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 참여율은 팬데믹 이전보다 여전히 낮고 기업체들은 직원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임금을 계속 올리고 있다.
- 전문가들은 수요와 공급 불일치는 일정 기간 계속될 것이라고 보면서, 소비자 지출이 줄지만, 기업들은 계속해서 직원들을 유지 또는 '비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Bloomberg 기사

#### [미국 금융]

#### **Bloomberg: US Mortgage Rates Drop to Lowest Level in More Than Two Months**

#### **미 모기지율 2개월여 만에 최저치로 하락**

- 미 모기지율이 2개월여 만에 최저치로 하락해 최근 급락 폭이 계속되는 위축된 주택시장에 약간의 안도감을 주고 있다.
- 11월 25일에 끝나는 주에 30년 고정 계약 모기지율은 18 베이스스 포인트 낮은 6.49%로 떨어졌다.

- 지난 3주에 걸쳐서는 30년 모기지율이 65 베이스 포인트 감소했다.
- 경기 침체 확대와 인플레이 둔화 신호로 이코노미스트들은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줄일 둔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 WSJ: Junk Bonds Rally as Investors Speculate Inflation Has Peaked 정크 본드 랠리 중이다... 투자자들, 인플레이 정점에 베팅

- 투자자들이 내년에 경제가 안정될 것이라는 잘못된 베팅으로 올해 치명적인 손실을 겪었으나 이를 일부 만회하면서 연말에 완만한 정크 채권 랠리를 이끌고 있다.
- Intercontinental Exchange 지수가 추적하는 투자 등급 이하의 회사채 수익률이 이번 주 월요일에 8.76%로 하락했다. 이는 최근 가장 높았던 10월 13일에 9.61%에서 떨어진 것이다.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자신감이 커지고 있다는 입장인데, 이는 금리가 아마 정점에 올라 저등급 회사들의 부채 상환 능력이 심각한 위험에 빠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와 높은 금리는 투자자들에게 주는 채권의 고정 지불 가치를 떨어뜨려 채권 가격은 낮아지고 수익률은 올라간다.

WSJ 기사

### [미국 내 물류]

#### WSJ: A Potential Rail Strike Looms. Here's What to Know. 철도 노조 파업 가능성... 알아둘 점은?

##### 파업이 발생할까?

의회에 반응에 달렸다. 연방의회는 노조가 반대한 노사 임금 중재안을 양측이 받아들일도록 할 수 있다(Railway Labor Act). 행정부와 양당은 이에 긍정적이다.

##### 의회 대응 늦어지고 협상이 중단되면?

화학 제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산업 제품의 운송이 지연되고 트럭으로 대체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트럭과 트럭 운전사는 충분치 않다.

##### 파업에 따른 연말 연휴 여파는?

대부분의 소매업체는 이미 연휴 용도의 제품을 비축해 놓은 상태다. 일부 Amtrak 승객들은 피해를 볼 수 있다. 스케줄이 바쁜 Northeast Corridor, Acela 루트는 여파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장기적인 여파는?

쉽지 않은 답변인데 많은 산업계는 제품 이동을 위해 철도에 많은 투자를 했다. 미시시피 강의 낮은 수위로 인해 바지선 이동도 혼란스럽다. 트럭 인프라도 부족하다. 현재 회사들은 철도 이용밖에 선택이 없는 실정이다.

WSJ 기사

### [미 무역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 WSJ: U.S. Not Seeking Decoupling From China, Commerce Chief Says 미 상무장관, “미국이 중국과 “단절”하지 않는다”

- Gina Raimondo 미 상무장관은 이번 주 수요일 브리핑에서 미국이 경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를 강조하면서도, 중국과의 단절 또는 탈동조(Decoupling)를 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이는 지난 11월 14일 바이든과 시진핑 간의 회담에 이은 발언으로, “중국과의 무역을 완전히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양국 경제 관계가 올바르게 시행되고, 무역에서 우리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이를 진작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연방 상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미국의 대중 무역은 총 5천 2백 70억 달러로 중국 전체 수출입 규모의 13%를 차지한다.

WSJ 기사

#### Politico: Foreign autos could get IRA extension 한국 등 외국 전기차 회사 IRA 적용 연기(Extension) 가능성

- 미국 의회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미 통과된 IRA 법을 다시 검토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 그러나 이 법안 주요 지원자인 민주당 미시간 출신 연방상원 의원인 Debbie Stabenow는 법의 재검토는 반대하지만 “일부 외국회사들은 연방 재무부와 시행령을 준비하는 상황인데 연장이 주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Some firms could be given an extension)
- 현대는 북미 조립 요건 시행을 늦추거나 시행 전에 이미 관련 미 투자를 발표한 회사들에게는 유예 혜택을 주도록 요청했다.

Politico 기사

#### WSJ: Biden Administration Pressed by Allied Nations to Revise EV Subsidy Program 미 우방국들, “전기차 보조금 시책 수정하라” 요구

- 미 행정부가 전기 자동차 보조금 시책의 기준을 촉박하게 마련 중인 가운데 미국은 자국 보호정책과 일부 우방국들의 요구 사이에 끼어 있는 상태다.
- 연방 재무부 소속 국세청은 이미 올해 8월 의회에서 통과된 IRA의 구체적인 지침을 연말까지 발표토록 마감을 앞두고 있다.
- 이에 따라 북미에서 전기차를 조립하도록 요구하고 배터리 소싱 및 제조에 대한 엄격한 룰을 부과하는 법안에 반대하는 유럽 연합, 한국, 일본 및 영국과 대립하고 있는 상태다. 이 국가들은, 자국 소속 회사들과 WTO 위해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미국과 유럽 관리들은 양측 무역 및 기술 위원회가 열리는 12월 5일에 이를 논의하고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하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바이든에게 연말 전에 이 분쟁 해소를 요구할 예정이다.
- 한국 정부는 이미 3년 연기를 요청했으며 연방 재무부에 “외국의 투자에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미국의 국제적인 의무와 불일치한 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해 법 조항을 최소한의 제한적인 방식으로 해석해 줄 것”을 요청했다.

WSJ 기사

### [글로벌 경제]

#### WSJ: Why America Doesn't Have Enough EV Charging Stations

##### 미국에 전기차 충전소가 부족한 이유

- 전기 자동차의 본격적인 도입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전기차 충전소의 부족이다. 미 정부는 전국 고속도로 충전 망 개발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지만 기업들은 그것의 수익성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전기차 충전소를 누가 소유하고 운영할 것인지를 두고 전력회사와 주유소가 전쟁을 벌이고 있다. 수익을 내기에는 전기차의 보급이 충분하지 않으며, 급속 충전기의 전기 요금 부과 구조도 구축되지 않아 전력 회사와의 마찰이 일어난다.
- 한편 인구가 많지 않은 일부 지역의 경우 EV 충전기를 설치해도 10년 동안 수익을 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교외 지역의 외진 도로를 따라 충전기를 건설하고 운영할 전력 공급자가 없는 것이다.
- 또 연구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657개의 공공 EV 급속 충전기를 모두 테스트한 결과 4분의 1 이상이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장이 잦은 장비의 유지 보수를 위한 기술자들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 WSJ 기사

## [한국 경제지 기사들]

- **연합인포:** 바클레이즈 "Fed, 내년 11월부터 금리인하 나설 것"
- **한경:** 中, '아이폰 생산기지' 정저우 전면봉쇄 풀었지만..."시위대·경찰 충돌"

##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Volkswagen, Honda Halt Production at China Plants Due to Covid-19 Curbs

#### 폭스바겐, 혼다 중국 공장 생산 중단...코로나 봉쇄 탓

- 폭스바겐, 혼다 등 자동차업체들이 중국 정부의 엄격한 코로나 봉쇄 조치가 이어짐에 따라 일부 공장에서 생산을 중단했다. 중국의 코로나 제로 정책과 반복적인 봉쇄로 업계 전반에 공급망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 한편 노동자들과 학생들이 시위를 하는 등 중국 내에서 대중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이에 일부 다국적 기업들은 시위로 인한 경제적 여파를 우려하고 있다.
- 세계 최대 규모 비행기 제조사인 에어버스는 공급망 문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에 대한 소싱 의존도를 재검토하며 중국 공급업체로부터 구매하는 제품을 어떻게 이중 조달할 것인지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 WSJ 기사

### Bloomberg: Tech Layoffs Create Rare Chance for Federal Recruiters to Snag Talent

#### 테크 기업들의 연이은 해고...미 연방 채용 담당자들이 인재 낚아챌다

- 최근 이어진 실리콘밸리의 대량 해고는 미 재향군인부(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에게 최고의 인재들을 낚을 드문 기회가 된 것으로 보인다.
- 미국 정부는 기술직 인재의 급여에서 민간 부문과의 격차를 넘지 못하고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겪어 왔다. 그러나 올해에는 지금까지 해고된 약 6만 명의 기술직 근로자들을 흡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VA의 최고 정보 책임자 Kurt DelBene는 VA가 내년 초까지 급여를 시장 금리에 맞추고 고용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공공 서비스 혁신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Bloomberg 기사

**Bloomberg: DoorDash to Cut 6% of Global Workforce in Cost-Cutting Push****DoorDash, 인력 6% 축소로 비용 절감**

-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음식 배달 기업 DoorDash는 이번 주 수요일 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팬데믹 기간 사업의 급격한 확장으로 인해 손실이 증가했으며 비용 절감을 위해 약 1천 2백 50명의 인력을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회사 인력의 약 6%에 달하는 규모이다.
- 인플레이션으로 소비자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다른 테크 기업과 달리 DoorDash의 주문량은 3분기 지난해 대비 27% 성장하며 17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등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음식 배달 분야의 경쟁이 치열해졌고, 지난해 핀란드 음식 배달 기업 Wolt를 인수하는 등 비용 지출이 커진 것이 주요 원인이 되었다.
- DoorDash의 순손실은 9월 말까지 분기 당 2억 9천 6백만 달러로 지난 1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이 회사는 이번 인력 감축으로 3분기 20억 달러 이상의 운영비를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Bloomberg 기사

**[보고서]****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美장단기 금리 역전 무조건 경기침체?...****"폭 클수록 인플레 완화 해석도"****최근 인플레 완화 지표에 장단기 금리 차 커져  
시장에서는 "인플레 완화에 대한 기대감" 해석**

미국 장·단기 국채 수익률 곡선 역전 폭이 커지고 있는 이유가 투자자들이 미래에 인플레이션 완화와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시장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난주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2년 만기 국채 수익률 보다 0.78%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1981년 이후 40년 만에 최대폭으로 벌어졌다.

국채 수익률은 미 연준이 설정한 기준금리가 채권 존속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얼마를 기록할 것인가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치를 반영한다.

미 장기 국채는 장기간 보유해야 하는 특성상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의 위험 부담을 안고 있어 일반적으로 단기 국채보다 수익률이 높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